

16세기말 영남 관료 李庭檜의 인적 교류와 同官契의 실제*

羅榮勳**

- | | |
|--------------------------|------------------------|
| I. 머리말 | IV. '사헌부 감찰' 재직과 동관 결속 |
| II. 이정회의 생애와 인적 교류의 배경 | V. 맺음말: 동관 결속의 실제와 의미 |
| III. '통례원 겸인의' 재직과 동관 결속 |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이정회의 인간관계를 친족, 동향, 동학, 동관으로 분류하고 특히 '동관'의 인적 교류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영남이라는 '동향', 퇴계와 학봉이라는 '동학'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던 이정회에게 이를 제외한 인맥은 자연히 '동관'을 중심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었다. 이정회는 통례원 겸인의 시절과 사헌부 감찰 시절에는 계회도를 남겨서 이 두 시기 동관의 인연을 별도로 추적할 수 있다.

이정회는 통례원 겸인의 당시 1586년과 1589년 두 차례 계회도를 남겼다. 『송간일기』의 기록을 토대로 교유양상을 분석한 결과 이정회는 통례원 '동관'들과 활발한 사적 모임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계회도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同官契'가 결속과 친목의 장치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했음을 알려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이정회는 사헌부 재직 기간에도 동일하게 두 차례의 계회도를 남겼다. 그러나 『송간일기』를 분석하면 이들 상호간의 결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정회는 동관인 사헌부 감찰 24명과, 6개월의 기간 동안 사적인 모임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적인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사업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21-RC01).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모임은커녕 상호간에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기록조차 거의 없다. 이는 앞선 통례원
관원들의 상호간 교류에서 보인 모습과 판이하게 다른 점이다. 그렇다고 이 시기 일기
의 기록이 소홀한 것도 아니다. 이정회는 이 기간 친족, 동향, 동학들을 꾸준히 만났
다. 심지어, 이 기간 사헌부 감찰 동관보다 직전 동료인 통례원 관원들을 더 자주 만났
다. 이런 점은 이정회의 사헌부 결속과 연대는 매우 낮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하다.

즉, 동일한 ‘同官契會’라 하더라도 개인의 참여의사나 혹은 관서의 성격에 따라 계
회의 결속 정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즉, ‘동관계회’가 존재했다는 사실
만 가지고 그들이 당연히 결속했거나 친목을 다졌다고 전제하는 것은 무리이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와 같이 향후의 ‘동관계회’ 분석에는 각 개별 계회도와 관원들의 실
제 모임을 세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계회도, 동관계, 송간일기, 이정회, 통례원, 사헌부

I. 머리말

‘同官契’는 같은 관청에서 근무했던 관원들, 혹은 같은 관직에 제수되었던 관원들 사이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맺은 모임이다. 동관계는 주로 조선시기에 제작되었는데, 16~17세기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동관계는 대부분 ‘契會圖’를 남기고 있었고 주로 미술사학계에서 관련 연구를 배출하였다.¹⁾ 특히, 윤진영은 계획도 연구를 통해 同官, 同榜, 同庚契의 실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동관계 이해에 큰 진전을 보여주었다.²⁾ 한편, 동관계에는 좌목과 序文, 詩文이 함께 포함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시문을 중심으로 한문학계에서도 계획에 관심을 보였다.³⁾ 앞선 연구들은 동관계 결집의 목적으로 이들 계원들이 ‘同官’이라는 의식을 품고 있었고 이러한 의식 속에서 상호 간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장치로서 기능했다고 판단했다.⁴⁾

다만 일부 연구는 동관계가 결속의 장치였다는 전제에서 검토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실제 인간 관계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자연히 계획도의 ‘座目’에 등장하는 계획의 참여 관원들에 대한 내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물론, 좌목에 나온 관원들은 인명과 관직, 부친의 정보 등 제한된 정보만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좌목 분석을 통해서도 이들 관원의 실제 친목과 결속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자연히 서문과 시문에 나온 내용에 따라 이들이 결속을 위한 장치로서 동관계를 했다고

-
- 1) 하영아, 「朝鮮時代의 契會圖 研究-16,17세기 作品을 中心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김보미,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16世紀 作品을 中心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3; 송희경, 「朝鮮後期 雅會圖 研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2)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4; 윤진영, 「안동 지역 문중소장 계획도의 내용과 성격」, 『국학연구』 4, 한국국학진흥원, 2004; 윤진영, 「조선시대 관료사회의 신참례와 계획도」, 『역사민속학』 18,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윤진영, 「조선후기 免新禮의 관행과 宣傳官契會圖」, 『서울학연구』 54, 서울학연구소, 2014.
 - 3) 사헌부 계획의 시문 분석을 토대로 이들의 결속에 대해 강조한 연구도 있다(최진경, 「조선시대 사헌부 계획의 문학적 재현 양상과 그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75, 민족문화사학회, 2021).
 - 4) 안휘준의 문인계획회에 관한 연구 이후 이러한 전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다. 특히 16세기 사림이 정계에 등장하면서 계획도가 증가한 것을 이들의 정치적 결속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안휘준, 「고려 및 조선왕조의 문인계획회와 계획도」, 『고문화』 2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2).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에서 문인들의 동관계회를 결속으로 전제하고 있다(신영주, 「15, 16세기 관료 문인들의 계획 활동과 계획도축」,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파악했다. 계회도의 시문과 서문에는 자신들 모임의 당위성 부여를 위해 결속과 친목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실제 관서에 재직할 당시에, 혹은 근무가 끝난 이후 인연의 끈을 계속 이어가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는 계회도의 ‘座目’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다.

최근 조선시대 일기자료가 당대의 역사상을 이해하는 사료로 활발히 활용되면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기 속에 나타난 인적 교류 양상을 분석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경목은 『眉巖日記』의 분석을 통해 유희춘이라는 한 개인이 맺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이 가운데 동일 관서 관원들 간의 결속인 ‘宦緣’이 존재했음을 제시하였다.⁵⁾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자들은 양반관료의 인적 관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일기’에 주목했고 많은 성과가 누적되었다.⁶⁾ ‘일기’ 속의 교유 관계에 관한 기록은 ‘계회도’의 좌목에만 수록된 인물들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필자는 16세기말 영남 지역 출신으로 중앙에서 관직 생활을 했던 李庭檜의 동관 결속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정희는 진성이씨 주촌가의 종손으로 현재까지도 다수의 자료를 남기고 있어 행적에 관해서는 다소 알려진 인물이다.⁷⁾ 특히 퇴계 이황과

-
- 5) 전경목,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양반관료의 사회관계망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 6) 김명자, 「大山 李象靖(1711~1781)의 학문공동체 형성과 그 확대」, 『조선시대사학보』 69, 조선시대사학회, 2014; 김정운, 「17세기 예안 사족 김령의 교유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70, 조선시대사학회, 2014; 최은주, 「『계암일록』을 통해 본 17세기 예안사족 김령의 인맥기반 형성과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5,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4; 김명자, 「『河窩日錄(1796~1802)』을 통해 본 豊山柳氏 謙巖派의 관계망」, 『대구사학』 124, 대구사학회, 2016; 최은주, 「17~18세기 영남지역 일기를 통해 본 향촌 공문의 변화와 사회관계망의 작용」, 『안동학연구』 15, 한국국학진흥원, 2016; 김명자, 「『梅園日記(1603~1644)』를 통해 본 예안 사족 金光繼의 관계망」, 『대구사학』 129, 대구사학회, 2017; 이근호, 「金斗欽의 관료 사회 인적네트워크와 현실 대응」,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2018; 김명자, 「『曆中日記』를 통해 본 18세기 대구 사족 최흥원의 관계망」, 『국학연구』 38, 한국국학진흥원, 2019; 김종석, 「『성재일기』에 나타난 16세기 재지 사족의 교유 양상」, 『국학연구』 41, 한국국학진흥원, 2020; 이연순, 「惺齋 琴蘭秀의 생애와 교유 양상」, 『국학연구』 41, 한국국학진흥원, 2020 등 다수.
 - 7) 이정희와 그가 속한 진성이씨에 대해서는 다양한 성과가 있다. 이는 1999년 『고문서집성』 41집에서 진성이씨 주촌가의 고서와 고문서가 정리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해제에서 문숙자는 「안동 주촌의 진성이씨가와 그 소장고문서의 성격」을 수록했고, 안승준은 「진성이씨가 고문서의 내용과 가치」, 『장서각』창간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에 각각 발표하면서 이들 자료에 대한 기초

같은 문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고 족보나 족계 등 문중의 형성과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 심지어 재산 등 가계의 경제적 측면, 또한 그가 남겨둔 계회도를 통해 개인사에 대해서도 이미 소개된 바가 있다.⁸⁾ 그럼에도 필자가 이정희에 주목한 이유는 ‘계회도’와 ‘일기’를 모두 남겨둔 드문 사례로서, 이정희와 동관으로 맺어진 인연들이 당대에 혹은 그 이후로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희는 관직 생활 자체가 그리 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재직했던 관서의 계회도를 4점이나 실물로 전하고 있으며, 관직 생활을 하던 기간 동안 교류를 맺었던 인물들을 세세히 기록한 ‘日記’ 역시도 남겨두었다.⁹⁾

그간 관인의 교류양상은 주로 후대에 의한 刪削된 ‘文集’을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일기의 교류양상 분석은 통계적 방식보다는 일기 속에서 독특한 교류 양상을 찾아서 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필자는 이정희가 특정 시기 맺었던 인맥을 모두 추출하는 계량적 방식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이는 다른 일기와 달리 이정희의 『송간일기』에는 거의 매일 자신이 만난 다수의 인명을 기록해 두었던 자료적 특성 때문에 가능한 시도였다.¹⁰⁾

분석 시기는 이정희가 중앙관직생활을 했던 시기로 한정하였다. 이정희는 16세기 말인 1577년부터 1592년까지 중앙과 지방에서 관직 생활하였다. 필자가 이정희의 교류관계를 분석한 기간은 1586년 1월 30일, 통례원 겸인익에 제수된 순간부터 1591년 5월 1일, 형성현감에 제수된 순간까지 약 5년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이정희가 서울에서 중앙관직을 하며 남긴 ‘동관계회도’ 4점이 남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

적 이해를 넓혀주었고, 이어 김문택의 연구를 통해 진성이씨 주촌가에 대한 심화된 이해가 가능하였다(김문택, 「16~17세기 안동의 진성이씨 문중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이들 선행 연구에 큰 도움을 얻었다.

8) 이정희 소유의 동관 계회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윤진영, 「松澗 李庭檉(1542~1612) 所有의 同官契會圖」, 『미술사연구』 230, 미술사연구회, 2001).

9) 여기서 참고한 자료는 『송간일기』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영인하였고, 원문은 현재 디지털장서각에서 온라인서비스를 하고 있다. 『송간일기』의 1590년 10월 10일 뒤에 붙은 4일부터 19일까지의 일기는 1589년 11월 4일에서 11월 19일까지의 일기인데, 1590년에 잘못 붙여두었다. 이는 『송간일기』의 영인본과 번역본,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에 모두 잘못 기입되어 있는데 수정이 필요하다.

10) 이정희는 일기를 통해 본인과 교류를 맺거나 만난 인물을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일기에 다른 기록은 소략해도 만난 인물은 거의 반드시 기록해 두었다. 이에 따라, 이정희의 교류 양상을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다.

회도'와 '일기' 속 인적 교류를 직접 비교하여 동관 교유의 양상을 가장 적실히 보여 줄 수 있다. 지금까지 단순히 좌목만 남아 있는 계회도의 한계에 따라 한 개인이 동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어떤 결속과 연대를 지속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본 연구를 통해 16세기말 한 영남지역 官人의 畝緣, 동관계의 실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정회의 생애와 인적 교유의 배경

1. 이정회의 생애

이정회는 1542년(중종 37) 경상좌도 안동의 주촌리에서 출생하였다. 처음에는 조 부에게 학문을 배우다가 1551년(명종 6) 10세의 나이로 먼 친척 어른이었던 忍齋 權大器에게 학문을 배웠다. 여기서 권대기의 아들이자 평생의 지우인 松巢 權宇를 만나 함께 수학하였다. 1561년(명종 16) 20세에 아산장씨 장운종의 딸과 혼인하였고, 1563년(명종 18) 22세에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 이때부터 진성이씨 대종가의 종손이 되어 향후 50년간 족중을 이끌었다. 이후 집안의 어른인 퇴계 이황과 함께 문중 자료를 정리하여 족보 제작 작업에 착수하기도 하였다.

1568년(선조 1) 27세의 나이에 동향이자 통혼관계를 맺고 있던 약포 정탁, 백담 구봉령의 추천으로 조정에 나아갈 수 있었다. 이후 醫書習讀官에 제수되면서 처음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때의 영향인지 이정회는 이후 주변 지인에게 자주 의술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569년(선조 2)부터 1570년(선조 3)까지 말년에 고향으로 귀향한 이황에게 직접 학문을 배웠다.

1578년(선조 11) 37세에 通禮院의 종9품 관직인 假引儀에 제수되었다. 이때 처음으로 통례원과 인연을 맺었는데 이후 드문드문 고향에 내려가기는 했지만 10년 넘게 통례원에 재직하게 되었다. 가인의 제수 직후에는 모친상을 당하여 3년을 여소에서 지내기도 했다. 탈상 직후인 1580년(선조 13) 다시 통례원 가인의에 제수되어 조정에 나아갔다. 가인의는 실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이 때문에 서울과 안동을 오가며 활동할 수 있었다.

1583년(선조 16) 이항의 아들인 李穡이 의성수령에 제수되었는데, 이에 따라 족보 편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정회는 이준과 그의 아들인 이안도, 이순도, 이영도와 함께 이항과 진행했던 진성이씨의 족보 편찬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해에 族契를 열어 진성이씨는 물론 가까운 통혼 친족들과 친분을 다졌다.¹¹⁾ 이 당시 맺은 결속은 이후 이정회가 안동은 물론 서울에서 생활할 때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 당시 좌목에는 진성이씨는 물론, 외척인 정사성, 권우 등이 등장하는데 서울 생활에 큰 도움을 받은 이들이었다.

1586년(선조 19) 1월, 45세에 통례원 兼引儀에 제수되었다. 그 해 9월 통례원에서 계회를 열었는데, 당시의 계회도가 현재까지 남아서 전하고 있다.¹²⁾ 이 시기 이정회는 약포 정탁, 서애 류성룡, 임연재 배삼익, 동암 이영도 등 안동출신의 유력한 중앙관원들과 함께 강신사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는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던 동향 인물 가운데 영향력이 큰 인물들과 이정회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1587년(선조 20) 46세에 陳謝使 배삼익을 호종하여 연경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런 연유로 1587년과 1588년 두 해에는 일기가 누락되어 있다. 당시 이성계의 世系를 수정하는 ‘宗系辨誣’ 문제로 외교사행이 빈번하였는데, 배삼익은 진사사로 명나라에 가서 아직 간행되지 않은 『大明會典』에 이성계의 세계가 수정되었다는 확답을 받고, 해당 부분을 등사하여 조선으로 가져온 공로가 있었다.¹³⁾ 이때 이정회는 배삼익을 호종하여 함께 다녀온 공로로 광국원종공신에 책봉되었다.¹⁴⁾ 1589년(선조 22) 12월에는 통례원에서 계회를 열었는데, 이때 계회도 역시 현재 전해지고 있다.¹⁵⁾ 앞선 계회도와 비교하면 통례원의 인사이동에 관한 이해가 가능하다.

1590년(선조 23) 49세의 나이에 사온서 주부에 제수되었다. 1561년(명종 16)부터 통례원 검인되는 30개월을 근무하면 참서관인 종6품 引儀로 陞六할 수 있는 특혜가 있었다.¹⁶⁾ 이에 따라 이정회도 1590년 4월, 정확히 30개월을 검인의로 근무한 이후

11) 1583년 『족계원의』의 내용은 김문택, 『조선시대 문중의 형성과 변화』, 민속원, 2019, 291~294면을 참조할 것.

12) 윤진영, 「송간 이정회(1542~1612) 소유의 동관계회도」, 『미술사학연구』 39, 미술사연구회, 2001.

13) 배삼익, 『臨淵齋集』, 「朝天錄」.

14) 광국원종공신은 모두 872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송일기, 「『光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0이 참조된다.

15) 윤진영, 「송간 이정회(1542~1612) 소유의 동관계회도」, 『미술사학연구』 39, 미술사연구회, 2001.

참서관이 되었다. 다만 실인의에 제수되지 않고 사온서 종6품인 주부에 우선 제수되었다. 이정회는 참서관이 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는 참서관부터 외방의 수령에 제수될 수 있었고 수령은 융통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이정회는 수령의 망단자에 올라 제수되길 기원하고 바랬다. 그러나 이정회의 기원과 달리 번번히 수령에서 낙방하더니, 1590년 12월에는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었다. 이때 이정회는 매우 큰 실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감찰의 직무가 매우 번다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기간 이정회는 감찰의 청대 업무로 인해 자주 야근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1591년(선조 24) 50세에 이르러서야 그토록 기다렸던 수령에 제수되었다. 강원도 횡성현감의 망단자에 올라 낙점되었던 것이다. 많은 친구들이 모여 이정회를 축하해주었다. 이정회는 곧 바로 횡성에 부임하여 업무를 시작했다. 다만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면서 횡성에도 역시 왜적이 쳐들어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하였다. 당시 횡성현감으로서 왜적 23과의 수급을 참획하는 전공을 올리기도 하였다.¹⁷⁾ 한편, 왜란을 맞아 동생인 이정백에게 안동에서 의병을 규합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왜적으로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향내를 경계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1593년(선조 26) 10월 11일에는 종5품의 군자감 판관에 제수되었으나 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이듬해인 1594년 1월 고향으로 돌아갔다. 안동으로 돌아온 이정회는 이후 안동 향내의 일을 처리하며 지냈다. 1597년(선조 30) 12월 경상좌도 의흥현(현재의 군위)의 수령에 제수되었으나 1년 만에 사직하고 안동으로 돌아왔다. 이후 1612년(광해 4) 71세의 나이로 안동 경류정에서 하세하였다.

이정회는 젊은 나이에 진성이씨 주촌 종가의 종손이 되었고, 16세기말 진성이씨의 문중을 확립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물로 평가된다. 퇴계 이황과 함께 족내의 문서를 모아서 족보를 간행하여 가계를 정리하였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안동에서 문중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다대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족계를 성립하여 가계를 재편하는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었다.

16) 『典錄通考』, 「이진」, 「경관직」, “통례원의 관원이 가인의에서 겸인으로 승진한 후 30개월을 채우면 實引儀로 승진시켜 서용한다. 1561년(명종 16)의 승전이다.”

17) 『선조실록』 권39, 선조 26년 6월 6일(기축).

2. 인적 교류의 배경

이정회의 인적 교류 양상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정회의 교류 관계를 ‘親族’, ‘同鄉’, ‘同學’, ‘同官’의 4개 범주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양반 개인의 인적 교류는 대부분 위 4가지 범주에서 교류되기 때문이다.

첫째, 친족 배경이다. 친족은 부계친족인 진성이씨를 포함하여 그의 외가, 처가 등 통혼 친족을 포함한다. 통혼친족의 범위는 당시 이정회의 문중에서 제작한 『契中完議』의 친족을 고조부인 이철손의 사위인 청주정씨 鄭彥輔의 후손들까지 포함하여 결성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¹⁸⁾ 우선 이정회의 부계친족을 살펴보겠다. 이정회는 진성이씨 시조인 이석의 3세인 이운후의 직계이다. 이운후가 주촌에 정착한 이후 그의 아들인 이우양, 이철손, 이훈, 이연, 이희안으로 내려오는 것이 주촌의 계보인데, 이정회는 이희안의 아들로 이운후의 직계 종손이 된다. 이에 따라 16세기말 안동지역 진성이씨의 중심에서 여러 부계 친족들과의 교류를 가졌다. 이 가운데 5대조인 이우양의 동생 이계양의 가계와 짚은 교류를 보였다. 이는 이계양 가계에서 퇴계 이황이라는 영남을 넘어 조선 전역에 영향을 미친 학자가 나왔고 이정회 역시 젊은 시절 이황에게 직접 학문을 배우며 그의 아들 이준과 손자 이안도, 이영도 등과도 깊은 교분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황은 이계양의 손자로 이정회에게는 9촌의 친족 어른이며 이황의 아들, 손자는 이정회에게 10촌, 11촌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이황이 진성이씨 족보 발간에 힘을 쓰면서 이정회를 대우했기 때문에 족보 작업을 이황의 자손과 함께 진행하며 교분을 더 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어 이정회와 맺어진 통혼을 가까운 친족부터 살펴보겠다. 우선 외가 계통으로 의성김씨와 연결되어 있다. 이정회의 모친은 의성김씨 김예범의 딸이며 靑溪 金璉의 누이였다. 김진은 학봉 金誠一의 부친으로 다섯 아들이 모두 立身하면서 탄탄한 가계를 이루었다. 이정회는 먼저 관직에 나아갔던 외사촌형 김성일에게 많이 의지하였고 그 형제들인 김복일, 김극일은 물론 그 자손들과도 깊은 교류를 맺었다. 처가 계통으로는 아산장씨 蔣胤宗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아산장씨는 의성 지역의 유수한 집안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가문이었다. 이정회에게도 다수의 재산을 물려주어 큰 도움을 주었다.¹⁹⁾ 장운종의 아들이자 이정회의 처남인 蔣龍과도 서울에서 교류

18) 김문택, 『조선시대 문중의 형성과 변화』, 민속원, 2019, 296~297면.

관계를 가졌다.

한편, 이정회는 5명의 매부가 있었다. 이 가운데 다섯째 처남이 재령이씨 李涵이었다. 이함은 이시명의 부친이자, 영남남인의 마지막 산림으로 지칭되는 갈암 이현일의 조부이기도 하다. 이정회는 자식을 통해 사돈으로 맺어진 인물과도 교분을 쌓았다. 특히, 둘째 아들 이지의 부인이 안동권씨 權宇의 딸이었다. 권우는 이정회와 평생지기였다. 이정회는 권우와 한 집에서 그의 임종을 지키기도 했을 정도로 깊은 관계에 있었고 서울 생활에도 큰 의지를 하였다. 셋째 아들인 이추는 흥해배씨 배지익의 여식과 혼인하였다. 흥해배씨는 배삼익 등 경상좌도 지역에서 영향을 지닌 가문이었다.

한편, 조모는 능성구씨 具仁貞의 딸이었다. 구인정의 형 具仁恕는 백담 구봉령의 증조였다. 이정회는 정탁과 구봉령의 천거를 통해 관직에 처음 진출하였는데, 구봉령과의 인연은 학맥과 함께, 이러한 친족 관계에서 나온 친밀감도 있었다. 증조부인 이훈의 여동생은 청주정씨 정언보와 혼인하였다. 특히 정언보의 손자 鄭士信은 이정회에게는 7촌 관계로, 아재뻘이었다. 서울에서 이정회가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정사신과 정사성 형제였는데, 이들과의 교유 관계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친족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청주정씨와의 인연은 藥圃 鄭琢과도 연결되어서 향후 관직 생활에 정탁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정회는 친족 관계에서 다수의 도움을 얻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진성이씨를 중심으로 외가인 의성김씨는 물론, 안동권씨, 흥해배씨, 능성구씨, 청주정씨 등과 연결되었고 동시대 인물들과의 인연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될 만큼 끈끈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송간일기』 속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자세히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둘째, 동향 배경이다. 이정회는 경상좌도 안동 주촌 출신이다. 따라서 안동을 중심으로 ‘동향’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이 인식한 동향에 대한 범주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하나의 군현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이정회는 안동을 중심으로, 진성이씨 이황이 거주한 예안, 경상좌도인 의성, 비안, 영해, 봉화, 진보, 청송, 예천 지역 사람들과는 그래도 경상좌도의 ‘동향’ 출신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경상우도이기도 하지만 인접 지역인 상주 역시도 ‘동향’의 일부로

19) 김문택, 앞의 책, 64~65면.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정희가 서울에서 타향살이를 할 때 주로 거처했던 지역이나 교류했던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이정희는 서울에서 ‘京邸’에 의지를 많이 했고 주로 출입한 공간이 ‘의성저’, ‘안동저’, ‘비안저’, ‘진보저’와 같은 공간이었고 여기서 동향 사람들과 교류하는 교두보로 여겼다.

당대 사람들은 ‘동향’의 교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는 영남사람들이 서울에서 생활하며 맺었던 동향계회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컨대 16세기말에서 17세기 제작된 『七松亭契會圖』부터 『終南同道會題名錄』까지, 동향 출신 관원들의 계회도를 보면, 영남이라고는 하지만 경상좌도를 중심으로 현재의 경상북도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결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당시 동향의 범주를 짐작할 수 있으며, 동향 사이에 별도로 계회도를 남긴 점은 이들이 중앙에서 관직을 연명하기 위해, ‘동향’을 하나의 인연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정희 역시, 동향 인맥을 토대로 중앙에서의 생활과 관직 연명에 활용하였다.

셋째, 동학 배경이다. 이정희는 어린 나이에는 친족인 안동권씨 忍齋 權大器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권대기는 퇴계의 제자이면서 막역한 사이인 권우의 부친이기도 했다. 권대기는 퇴계의 문하에서 특히 월천 조목, 백담 구봉령, 성재 금난수 등과 친분이 깊었는데, 이들은 그대로 이정희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인물들이다.

이정희는 말년의 퇴계에게 직접 학문을 배우기도 하였다. 1542년생인 이정희는 1569년 이황이 예안으로 귀향하면서 직접 모시면서 수학하였다. 이는 이황과 한 집안 사람이라는 친연성도 적용했지만 당시 경상좌도의 학자라면 누구나 추앙하는 대학자인 이황에게 학문을 전수받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퇴계의 문인으로 편입되면서 자연히, 퇴계 문인들과의 교분도 쌓을 수 있었다. 이정희는 권대기에게 주로 학문을 배웠지만, 그 역시 퇴계의 문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정희는 퇴계 문인으로 ‘동학’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정희의 ‘동학’은 퇴계에게 직접 학문을 배운 사람들로 제한하였다. 즉, 학봉 김성일이나 백담 구봉령의 제자들은 ‘동학’의 분류에서 제외하고 참고로만 삼았다. 이들은 학연 관계가 얹혀있어서 퇴계 이황에게 배우고 또 퇴계의 제자들에게 배우기도 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동학’으로 간주하면 퇴계 이황의 제자 모두를 포괄하는 동학의 인연을 중복해서 설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 최경훈, 「조선후기 同鄉契會帖과 『三淸洞道會圖帖』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83, 한국서지학회, 2020.

퇴계에게 직접 배운 제자로 한정하여 이정회와의 ‘동학’ 관계를 설정하였다.²¹⁾

마지막으로, 동관 배경이다. 이는 이정회가 관직에 나아가 설정된 관계인데, 앞서 이정회의 생애를 기술할 때 이미 소개한 바 있다. 예컨대, 의서습독관, 통례원, 사온서, 사헌부, 횡성현감, 군자감 등이 이정회가 직접 재직하면서 교분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계회도를 남겨두었던 통례원 겸인의 시절과, 사헌부 감찰 재직 시절로 한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나머지 관서의 관원들은 누가 함께 재직했는지 파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특히 동관의 결속을 중심으로 파악하되, 앞선 여러 인적 관계망을 고려하면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Ⅲ. ‘통례원 겸인의’ 재직과 동관 결속

1. 겸인의 재직기의 전반적인 인적 교류

이정회는 1586년 1월 15일부터 1590년 4월 14일까지 약 4년의 기간을 겸인으로 재직하였다. 겸인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0개월 즉, 2년 6개월을 넘겨야 참서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이정회는 이보다 늦은 4년 3개월이 걸렸다. 이는 1587년 陳謝使를 따라 북경에 다녀오고 중간에 고향으로 내려갔다 오는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북경에 다녀오는 일정 때문에 1587년과 1588년의 일기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분석한 기간은 1586년 1월 15일부터 12월 31일, 1589년 3월 7일부터 9월 28일, 1590년 1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다.

이 기간 이정회는 인명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477명을 2,560회에 걸쳐 만났다. 1인 평균으로 5.4회를 만난 것인데 절반에 가까운 239명은 이 기간 단 한차례만 만난 것으로 확인된다. 주로 교유한 인물은 이 기간 동안 10회 이상을 만난 인물로 한정해보았는데 모두 56명을 1,604회에 걸쳐 만난 기록이 있다.²²⁾ 이들

21) ‘동학’의 범주인 퇴계 문인은 『退溪學脈圖』를 참조하였다.

22) 주로 교유한 인물의 만남을 10회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임의적 방식이다. 2차례 이상 만난 인물은 238명인데 이들을 모두 주요 교유 인물로 분석할 수 없어서 임의적으로 10회로 제한하고 분석하였다.

은 해당기간 이정희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정희의 인적 교류를 살펴보겠다.

해당 기간에 이정희가 만난 주요한 사람들을 앞서 인적 교류의 배경에서 제시했듯이,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친족 관계, 둘째는 동향 관계, 셋째는 동학 관계, 넷째는 동관 관계(통례원)이다. 이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친족과 동향, 동학의 경우에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김성일은 외사촌으로 친족이면서 영남으로 동향, 퇴계 제자로서 동학이다. 즉, 다수의 분류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중복된 경우를 고려하여 인물 관계를 분류한 것이 아래 <표 1>이다.

<표 1> 통례원 겸인의 재직시의 인적 교류(『송간일기』)

분류	인원수	횟수	인명(만난 횟수)
친족+동향+동학	6	287	①김성일(93), ⑤이영도(72), ⑥정사성(53), ⑩권우(47), 이정백(11), 이봉춘(11)
친족+동향	5	144	③정사신(79), 이함(24), 김용(16), 장룡(15), 박려(10)
친족+동학	0	-	-
동향+동학	8	304	②정탁(82), ⑥류성룡(53), ⑧금난수(52), ⑫권희(46), 배삼익(24), 김택룡(18), 이덕홍(17), 정곤수(12)
동향+동관	3	139	④조철권(77), ⑬전삼락(44), 금할(18)
친족	0	-	-
동향	9	171	김경수(28), 권희순(25), 안제(19), 권채(19), 황여일(18), 안몽열(18), 김해(18), 김응우(16), 박홍장(10)
동학	0	-	-
동관	9	245	⑨고응잠(50), ⑮김홍주(42), 권응중(27), 홍진(26), 이원로(23), 설함(22), 윤순(20), 장응명(20), 박적(15)
미분류	16	314	⑩이중휘(49), ⑭김사부(43), 지경명(35), 권경함(26), 노사엄(19), 안사확(17), 민사부(17), 권사영(17), 정위(16), 이시무(12), 홍극이(12?), 원사연(11), 조건(10), 이대록(10), 김경운(10), 민중빈(10)
합계	56	1,604	-

출전 : 『송간일기』

비고1 : 진한 글씨는 40회 이상 교류한 15명이다. 앞의 번호는 교류 횟수 순위이다.

비고2 : ‘친족’, ‘동학’, ‘동향’의 범주는 앞서 2장에서 규정한 분류에 따랐다.

이정희가 서울에 있는 약 5년의 기간 동안 잦은 교류를 보였던 인물들을 망라한 것이 이 <표 1>이다. 친족과 동향, 동학을 모두 공유하는 인물이 6명, 친족과 동향을 공유한 인물이 5명, 동향과 동학을 공유하는 인물이 8명, 동향과 동관을 공유하는 인물이 3명이다. 동향만을 공유하는 인물이 9명이었고, 친족이나 동학만 공유하는 인물은 없었다. 동관만을 공유하는 인물은 11명이었고, 이들은 당연히 통례원 소속이었다. 이 외에 명확한 관계를 알 수 없는 인물이 16명이었다. 결국, 이 시기 이정희의 교유 양상은 동관의 인연을 제외하면, 대개 ‘동향’의 인연을 바탕으로, 친족, 동학, 동관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동향’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두 29명으로 전체 56명 가운데 절반인 52%에 이른다. 이를 제외하면 동관과의 교류가 많았는데 이들은 도합 12명이다. 미분류한 16명은 이정희와의 개인적 친분은 확실하지만, 면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 위에 분류된 인물들을 동관 인연을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교류가 있었던 인물군은 친족이면서 동향과 동학을 공유한 이들이다. 이황의 손자 李詠道,²³⁾ 동생인 李庭柏, 재종형제인 李逢春²⁴⁾은 진성이씨 부계혈족이다. 金誠一은 외사촌,²⁵⁾ 鄭士誠은 청주정씨로 고조부의 사위 혈통인 인척 관계이다.²⁶⁾ 權宇는 사돈 관계를 맺은 인연과 함께 증조부 이훈의 동생인 이감 계통

23) 이영도는 이정희보다 17년 연하이지만 촌수로는 11촌 삼촌뻘이다. 이황의 아들인 李雋과 장손인 李安道가 사망한 이후 문중의 사안에 대해 가장 많이 논의한 상대이다.

24) 이봉춘은 이정희의 재종형이다. 동갑이지만 항상 묘이라 불렀다. 이봉춘은 1575년 이른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오랫동안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1586년에 자주 찾아와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는 사이였다.

25) 김성일은 이정희가 서울에서 가장 의지하던 사람 가운데 한명이었다. 김성일은 1538년생으로 이정희보다 4살 연상으로 1568년(선조 즉위) 문과에 급제하여 조정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정희가 현실적으로 기댈 수 있었다. 서울에 올라온 이후 이정희는 김성일을 자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밤늦게 대화하며 간혹 同宿도 했다. 1590년 3월 6일 김성일이 조선통신부사로 제수되어 일본으로 떠났기 때문에 한동안 만남이 끊겼음에도 가장 많은 교류를 한 사람이기도 하다(『선조실록』 권24, 선조 23년 3월 6일(정미)).

26) 정사성과 정사신 형제 역시 김성일만큼 잦은 교류를 보였고 서울 생활에 큰 힘이 되었다. 정사성은 이정희보다 3살 연하이고 정사신은 16살 연하이다. 나이는 어리지만 삼촌뻘이 되었기에 이정희는 항상 이 둘을 아재(叔主)라고 불렀다. 정사성은 퇴계 문인록에 오른 동학이지만, 정사신은 백담 구봉령의 문인으로 퇴계에게 직접 수학하지는 못했다. 이에 정사신은 친족+동향으로 분류하였지만 편의상 정사성과 함께 소개하겠다. 정사신은 1582년(선조 15)에 문과에 급제해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정사성은 참봉으로 관직 생활 중이었기에 서울에서 지내며 이정희와 자주

의 친족 구성원이다.²⁷⁾ 친족관계는 물론, 지연과 학연이 겹쳐 있었던 인물들로 이정회가 가장 자주 만나고 의지했던 인물일 수밖에 없다. 특히 1583년 진성이씨의 죽보를 제작하고 족계를 구성할 당시에 고조부 李哲孫 자손을 중심으로 계회를 구성했는데 정사성, 권우, 이정백, 이봉춘이 그 구성원들이다.²⁸⁾ 이들은 당시 모두 서울에서 중앙관직을 수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었고 따라서 이들의 만남 역시 긴밀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친족과 동향’을 공유하며 교류한 인물이다. 우선, 鄭士信은 정사성의 동생으로 앞서 설명했다. 李涵은 재령이씨로 김성일의 문인이며 영해 사람이다. 갈암 이현일의 조부로 유명하다. 이정회의 여동생과 혼인하여 이정회의 손아래 매부가 된다. 문과 급제를 위해 조정에 올라와 있으면서 이정회와 교분을 쌓았다. 주로 제사를 함께 지내거나 귀향길을 전송하거나 종종 찾아가 대화를 하는 관계를 지녔다. 1586년과 1589년에 자주 만났으나, 1589년 5월 21일 귀향한 이후로 서울에서의 만남은 확인되지 않는다. 金涌은 金守一의 아들이며 김성일의 조카이다. 1557년생으로 안동 사람이며, 이정회의 외당질이다. 이정회는 모계 혈족인 의성김씨와 잦은 교분을 보였는데 김용 역시 서울에 오면 자주 찾는 인연의 하나였다. 蔣龍은 아산장씨로 이정회의 처남이다. 박려는 퇴계 이황의 손녀사위이다. 1586년과 89년 오가며 교분을 쌓았다. 이들은 친족 관계이면서 또 동향이었기 때문에 이정회와 잦은 교유를 보였다. 더욱이, 이함과 김용, 박려의 경우에는 김성일의 문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넓게는 학문적으로 퇴계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동향과 동학’을 공유한 인물이다. 모두 퇴계의 제자이면서 중앙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로 정탁,²⁹⁾ 류성룡,³⁰⁾ 琴蘭秀,³¹⁾ 권희,³²⁾ 배삼익,³³⁾ 김택룡,³⁴⁾

교류하였다.

27) 이정회에게 가장 막역한 친구는 송소 권우였다. 권우는 이정회보다 10살이나 어리지만 이정회의 스승인 권대기의 아들로 일찍부터 인연을 함께 하였다. 이후에는 함께 퇴계 말년의 문하에서 공부하며 친분을 두텁게 가졌다. 앞서 살폈듯이 권우는 친구이면서 族中의 인척 관계였다. 1586년 권우가 참봉에 제수된 이후 이정회와 함께 거처하면서 매일을 같이 만났고 1590년 3월 권우가 천연두로 와병할 때에는 옆에서 극진히 간호하다가 임종을 지켜준 친구이기도 하다.

28) 1583년 족계의 구성원은 이철손의 후손들로 구성하였다. 예컨대, 이정백은 이정회의 동생이지만 삼촌인 이희용의 繼子 자격으로, 정사성은 이철손의 사위인 정언보의 손자 자격으로, 권우는 이철손의 손자인 이제의 外孫 자격으로, 이봉춘은 이철손의 손자인 李漢의 손자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김문택, 앞의 책, 101~121면).

정곤수,³⁵⁾ 이덕홍³⁶⁾ 등 퇴계 문인 가운데 쟁쟁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탁과 류성룡은 조정의 중신으로 이정희가 향중의 일을 논의할 때 가장 의지하는 존재들이었다. 배삼익 역시 이정희가 겸인의 재직 시절 승지에 오르는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이 외에도 금난수, 권희, 김택룡, 정곤수, 이덕홍 모두 조정

-
- 29) 약포 정탁은 청주정씨로 이정희보다 18살 연상이다. 정탁은 구봉령과 함께 이정희를 천거하여 중앙에서 관직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정희의 관직 생활 내내 정탁은 조정의 요직에 자리하고 있었던 영향으로, 이정희가 김성일과 함께 서울에서 가장 많이 찾았던 인물의 한명이었다. 정탁은 이정희가 겸인의로 재직할 기간 동안 예조, 병조, 이조의 판서를 두루 거치고 있었다. 이정희는 향내의 문제를 소통하거나 또 서울에서의 생활 중에 수시로 찾아뵙고 안부를 물었다.
- 30) 서애 류성룡은 풍산류씨로 이정희와 동갑이었다. 1566년 24살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 이후 청요직을 두루 거쳤고 1579년에는 이미 당상관에 올랐다. 이정희가 겸인의로 재직하던 무렵에는 판서와 대제학을 두루 거치는 조정의 중신으로 성장해 있었다. 1590년에는 우의정까지 올랐던 인물로 영남지역에서는 당대에 가장 현달하였다. 자연히 이정희는 류성룡을 자주 문안하며 향중의 일을 논의하였다.
- 31) 성재 금난수는 봉화금씨이며 이정희보다 12살 연상이다. 당시 장흥고 봉사와 직장, 장예원 사평 등을 역임하고 있었고 조정에서의 활동 기간이 겹쳤고 또 퇴계 문인이라는 공통점으로 잦은 교류를 보였다.
- 32) 송와 권희는 안동권씨이며 이정희보다 3살 연하이다. 1589년 6월에 안동으로 귀향하기 전까지 두 달여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이정희가 가장 자주 많았던 인물이었다. 1589년 4월 한 달 동안은 22차례나 만났고, 5월에도 16차례나 만나 종일 대화하기도 하고 함께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등 사적인 친분을 보였다. 권희는 權審行의 아들이며 權士彬의 증손으로, 충재 권벌의 손자뻘 친족이다. 퇴계 문인록에도 오른 동학이기도 했다.
- 33) 임연재 襄三益은 홍해배씨이며 이정희보다 8살 연상이다. 1585년 승지로 당상관이 되었는데 이정희가 자주 찾아뵙고 술을 마시는 관계였고 편지도 종종 주고 받았다. 1587년 배삼익이 진사사로 명나라 사행을 갈 때 배종하여 함께 간 인연이 있을 정도로 가까웠다. 1588년 황해도관찰사로 재직 중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 34) 조성당 金澤龍은 의성김씨이며 이정희보다 5살 연하이다. 월천 조목의 문인이자 퇴계 문인이기도 했다. 김택룡은 특히 이정희의 친우인 권우와도 각별했는데, 이러한 인연으로 서로 자주 보는 사이가 되었다. 1588년 문과에 급제하여 조정에서 활동하였다.
- 35) 栢谷 鄭崐壽는 이정희보다 4살 연상으로. 한강 정구의 형이기도 하다. 동생인 정구와 함께 퇴계에 게 사사받았다. 1576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쳤고 1588년 西川君에 봉해졌다. 이정희가 자주 찾아 뵙고 인사 올리는 동향의 한명이었다.
- 36) 간재 李德弘은 영천이씨이며 이정희보다 한 살 연상이다. 예안 출신으로 퇴계 이황의 문인이다. 일찍부터 이황의 사랑을 받은 제자로 조정에서 이름난 선비로 알려졌다. 1578년 집경전 참봉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정희와는 1586년과 89년, 90년 등 자주는 아니지만 꾸준히 교류하며 인연을 이어갔다.

에서 관직 생활을 하면서 상호 간에 안부를 묻고 또 자주 찾아가 논의하는 사이였다. 이들은 동향 출신이면서도 퇴계의 학문을 직접 사사받았던 인연으로 보다 끈끈하게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들 모두 당대로는 조정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긴밀히 연계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동향’ 출신의 인물이다. 金敬受, 權希舜, 安霽, 權采, 黃汝一, 安夢說, 金垓, 김응우³⁷⁾, 朴弘長 등 모두 9명이다. 이들은 동향에서도 인정받는 학자나 관료가 많았다. 김경수와 권희순은 잦은 만남에 비하여 동향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다.³⁸⁾ 이 둘을 제외하면 대부분 퇴계의 再傳弟子로 동향에서 넓게는 ‘동학’의 인연까지도 공유하는 사이인 경우가 많았다. 안제의 경우 백담 구봉령의 문인이며,³⁹⁾ 권채는 권동보의 문인이다.⁴⁰⁾ 황여일과 김해는 모두 김성일의 문인이었고,⁴¹⁾ 박홍장은 김언기의 문인인 박의장의 동생이었다.⁴²⁾ 안몽열은 안동 현내의 유학자로 이름이 있었다.⁴³⁾ 이처럼, 동향 출신으로 분류된 이들도 결국은 퇴계 이항의 직접 문인이

37) 주춘 고문서에, 김응우가 토지매매명문의 집필로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며, 본인을 前봉사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사대부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정확히 알 수 없다.

38) 金敬受는 敬受는 자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물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 1586년 잦은 만남을 보였는데 만난 장소가 주로 의성 경저였던 것으로 보아, 의성 사람인 것으로 추정된다. 權希舜은 자가 景華로, 안동권씨이며, 1551년으로 이정희보다 9살 연하이다. 의성에 거주하며, 무과에 급제하였다. 동향의 인연으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경화가 서울에 올라오면 이정희를 자주 찾아가 의존하였다.

39) 安霽는 순흥안씨이며 1538년생으로 이정희보다 4살 연상이다. 1580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거주지는 안동이며 백담 구봉령의 문인이다. 퇴계에게 직접 배우기도 하였다. 서울에 있을 때에는 이정희와 자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거나 숙식을 함께 하기도 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

40) 權采는 1557년생으로, 충재 권벌의 손자이며, 權東輔의 아들이자 문인이다. 봉화 사람이다. 권동보가 퇴계의 문인이니 권채 역시 그 영향을 받았다. 권채의 누이가 이영도와 혼인하여 둘은 처남매부 관계이기도 하다.

41) 黃汝一은 평해황씨이며 1556년생으로 이정희보다 15살 연하이다. 1585년 문과에 급제하여 활동하였고 김성일의 문인이기도 하다. 1588년 예문관 검열이 되어 청요직을 거치게 되었는데 이정희가 황한림이라 부르며 함께 술 마시고 정담게 대화했던 기록이 많아 개인적 친분이 좋았다고 짐작된다. 金垓는 광산김씨 김부익의 아들로 김성일의 문인이다. 1555년생으로, 안동에 거주하며, 1587년부터 천거로 인해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1588년부터 조정에 들어왔다. 1591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한림이 되었다. 이 기간 이정희와도 자주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42) 朴弘長은 무안박씨이며, 1558년생으로 이정희보다 16살 연하이다. 영해 출신으로 1580년 무과에 급제한 무인이다. 박의장의 동생으로 함께 이정희를 종종 찾아가 교류하였다. 박의장은 김언기의 문인으로, 퇴계의 영향을 받았다.

아닐 뿐 그 문인의 문인이다. 김성일, 조목, 구봉령, 권동보, 김언기 등은 모두 퇴계의 문인들이기에 결국은 출신이 불명확한 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계 학맥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이 기간 이정회와 10회 이상 만난 인물 가운데 내력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인물이다. 이들 가운데 이중휘,⁴⁴⁾ 김사부,⁴⁵⁾ 지경명,⁴⁶⁾ 노사엄,⁴⁷⁾ 원사언⁴⁸⁾ 등 5명은 이 기간을 포함하여 상당히 잦은 만남을 보였던 인물들로 친족과 동향, 동학 어디에서도 명확한 출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막연한 친우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
- 43) 安夢說은 순흥안씨이며 1539년생으로 이정회보다 3살 연상이다. 안동에 사는 유학자로 이정회와 함께 안동 향내의 일을 함께 하였다. 1586년에 서울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가 자주 만났다. 특히 1581년 현으로 강등되었던 안동을 도호부로 승격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 44) 이중휘는 매우 오래 전부터 친분을 다져온 사람이다. 『송간일기』에 111회 이름이 등장하며, 『송간일기』의 시작점인 1577년부터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교분을 쌓은 사람이다. 이중휘는 이후 대부분 서울에서 서로 오가며 대화하고 바둑도 두고 술도 마시는 사이였다. 이후 이름이 꾸준히 거론되다가 1593년 11월, “이중휘를 보았는데 매우 애처로웠다(可矜可矜)”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이중휘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서울에서 이정회와 개인적 친분을 맺고 오랜 기간 함께 한 인물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 45) 김사부 역시 오랜 기간 친분을 다져온 사람이다. 『송간일기』에 122차례 이름이 등장한다. 그 역시 일기의 시작점인 1577년부터 만났다는 기록이 있다. 1578년 1월 통례원 인의에 제수되었고, 이후 공조정랑, 당진군수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이정회가 형성현감으로 부임하여 내려갔던 1591년 5월 12일, 전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다.
- 46) 지경명은 자가 仲源으로, 일기에는 77회 등장한다. 1584년 처음 만남이 확인되는데 이후 꾸준히 만남을 가지다가 1586년 12월 이후로는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 87년과 88년 기록의 누락 영향도 있겠지만, 이후부터 만남이 끊긴 것을 알 수 있다. 1586년 당시 내자시 봉사였던 지중원은 청주에 거처를 둔 사람으로, 동향의 인물도 아니었다. 다만 함께 창을 즐기면서 만남을 지냈던 인물로 개인적 친분이 깊었던 인물로 보인다.
- 47) 노사엄은 박여량이 만사를 지었다. 아마 박여량이 노상에게 글 공부를 하고 廬士尙과 탁영서실에서 고대 정경은 등과 함께 공부하였던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들은 남명계통의 풍천노씨인데, 노사엄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맺었는지는 알 수 없다. 노사엄(노여경)은 1577년부터 등장하는 매우 오래된 친구이다.
- 48) 元士彦은 일기에 80회 나온다. 1577년 5월 18일 일기의 거의 첫 부분부터 등장하는데 매우 오래된 친구인 것으로 보인다. 1581년 1월 14일, 습독 원사언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원사언은 습독관으로 있을 때의 인연일 가능성이 있다. 함께 노래[唄]를 익히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아 지경명, 권경함과 같이 통례원의 인연이 작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591년 5월 11일 이정회가 형성현감으로 떠난 뒤 둘의 관계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과는 자유롭게 대화하고 술마시고, 바둑을 두거나 놀러가는 사적 친목을 다지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안사확, 민사부, 권사영, 정위, 이시무, 홍극이, 조건, 이대록, 김경운, 민중빈 등과 만난 기록이 있는데 이들 역시 명확한 인물 내력을 알 수 없다. 조정에서의 인연이 작용하여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분류가 명확하진 않지만 이들은 이정회와 관서에서의 인연이 작용했던 서울에서의 오랜 지인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10회 이상의 교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인물이 있어서 몇 명만 소개하겠다. 우선 월천 趙穆이다. 조목은 이정회보다 18살 연상이다. 예안 사람으로 오랜 기간 퇴계를 모신 제자이기도 했다. 이정회는 1586년 조목이 정랑으로 있을 당시에 종종 찾아뵈었다. 또한 琴易堂 裴龍吉과 梧峰 申之悌 역시 이정회와 서울에서 종종 만남을 가졌다. 배용길은 배삼익의 아들로 조목과 김성일에게 수학하였다. 신지제는 김언기와 김성일에게 수학하였다. 둘은 퇴계의 문인은 아니지만 김성일에게 수학하면서 역시 이정회와도 막역한 관계를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통례원 겸인의 재직 기간의 이정회의 인적 교류 양상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좌도 일대의 ‘동향’이라는 울타리에서 맺어진 인연의 연장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친족간 연결이든, 동학의 인연이든 결국은 퇴계 이황이라는 학연의 영향 아래 다시 연결되어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퇴계의 학연에서도 학봉 김성일의 영향을 받은 이들과 긴밀한 교류를 했고, 더하여 금난수, 이영도, 김택룡 등 월천 조목의 영향을 받은 이들과도 깊은 교류를 이어갔다. 이정회의 인적 교류는 결국 당대 경상좌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과의 친연성을 바탕으로 그러한 인연이 결국은 서울에서도 지속되어서 주요한 만남 역시 이들과의 교분 속에 있었다. 이처럼, 당시 이정회는 ‘친족-동향-동학’의 네트워크가 혼합된 상황과 별개로 서울에서 맺어진 새로운 인연 역시 존재했는데 그것은 대부분 ‘동관’의 인연이었을 것이다. 절을 달리하여 이정회가 맺은 동관 교섭의 실재를 살펴보자.

2. 겸인의 재직기 동관 교섭의 실제

이정회는 1578년 통례원 假引儀에 제수되어 통례원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이후 부침이 있었으나 대체로 가인의료 활동하다가 1586년 1월 兼引儀로 승진하였다.

통례원 겸인의는 종9품으로 정원은 6명이었다. 일반적으로 결원이 생기면 가인의 6인 가운데 임용 순서가 빠른 인원을 겸인으로 승진시켰다. 가인의 역시 종9품이었으나 겸인의는 30개월을 재직하면 陞六되어 참서관이 될 수 있는 관직이었기 때문에 더 높은 위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⁴⁹⁾

통례원은 예절과 의식을 관장하는 업무를 맡았다. 특히 겸인의는 臚唱에 능한 인원을 뽑았는데 이는 행사를 주관할 때 사회자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통례원에는 장관으로 정3품 당하관의 좌통례와 우통례가 1명씩 있었고, 종3품의 상례, 익례, 정4품의 봉례, 정5품의 贊儀가 각각 1명씩 있었다. 그 아래에 종6품의 引儀가 있었는데, 이들이 實引儀로 6명이었다. 그 아래에 종9품의 兼引儀가 6명이 배치되었고, 또 그 아래에 종9품의 假引儀가 6명 있었다. 통례원 전체 관원은 24명이나 되었던 것이다. 겸관과 가관을 12명이나 둔 이유는 조정에 의례나 행사가 많았기 때문이었는데 다양한 행사에 인원들을 배정하고 차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정회는 1578년 가인의부터 1590년 겸인으로 승륙하기까지 통례원에서만 12년을 근속하였다. 당연히 통례원에서의 인연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서는 통례원 겸인의에 제수된 이후부터의 결속을 살폈는데 이는 이정회가 겸인의에 제수된 1586년 9월과 1589년 10월에 통례원에서의 동관계회가 설행되었고 계회도 자료가 현재까지 남아 있어서 통례원의 인적 구성을 유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1586년 9월 16일, 한강에서 통례원 계회가 설행되었다.⁵⁰⁾ 이때 이정회는 겸인의 6인 가운데 말석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1589년 10월에도 통례원 계회가 설행되었는데 이때는 겸인의 6인 가운데 가장 첫머리에 이름을 올렸다. 아래 <표 2>는 통례원계회도의 「좌목」을 정리한 것이다.

49) 『속대전』, 「경관직」, 정3품아문, 通禮院.

50) 『연보』, 만력 14년(1586), 9월 16일.

〈표 2〉 ‘통례원계회도’의 좌목과 동시기 ‘일기’ 등장 횟수

1586년 『통례원 계회도』, 「좌목」						1589년 『통례원 계회도』, 「좌목」					
관직	이름	자	본관	거주지	일기	관직	이름	자	본관	거주지	일기
우통례	李蘧	중상	신평	서울	2	좌통례	李廷虎	仁*	-	-	-
인의	尹景祉	수지	파평	서울	1	인의	朴元凱	虞*	밀양	서울	-
인의	崔三益	경우	충주	서울	1	인의	安有齊	伯元	순흥	서울	-
인의	方承慶	신길	온양	서울	-	인의	宋安國	忠輔	진천	남양	-
판관 (前인의)	全五倫	신서		금산	8	인의	楊應春	仁卿	청주	은진	5
현감 (前인의)	南應善	중원	의령	장흥	1	인의	洪震	起而	남양	광주	26
검인의	權釜	언방	안동	서울	9	검인의	李庭檜	경직	진보	안동	본인
검인의	張應明	회부	청송	서울	20	검인의	尹珣	맹진	무송	서울	20
검인의	高應潛	원용	청주	음성	50	검인의	朴寂	안숙	나주	서울	15
검인의	洪震	기이	남양	광주	26	검인의	趙壽益	汝誠	순창	서울	3
검인의	朴寂	안숙	나주	서울	15	검인의	曹綴權	계효	창녕	선산	77
검인의	李庭檜	경직	진보	안동	본인	검인의	權應中	시언	안동	서울	27
검인의	-	-	-	-	-	검인의	李元老	勳伯	성주	서울	23
가인의	尹珣	맹진	무송	서울	20	가인의	李應吉	君遇	경주	서울	7
가인의	金洪鑄	대균	경주	서울	42	가인의	鄭復	叔初	광주	서울	6
가인의	薛誠	여성	순창	서울	22	가인의	趙珙	*仲	한양	광주	1
가인의	曹綴權	계효	창녕	선산	77	가인의	全三樂	慶叔	울산	예천	44
가인의	權應中	시언	안동	서울	27	가인의	琴堧*	士重	홍해	예천	18

1586년 9월에는 모두 17명이 좌목에 이름을 올렸다. 좌목에는 우통례 이외에는 모두 인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實引儀가 먼저 이름을 올렸고, 이어 검인의, 가인의 순서로 등록하였다. 1586년에는 전직 인의였던 전오륜과 남응선을 포함하여 인의 3명, 검인의 6명, 가인의 5명이 참여하였다. 1589년에는 좌통례에 이어서 인의 5명, 검인의 7명, 가인의 5명이 계회에 참여하였다. 이 계회도는 이정회가 통례원 검인의 재직 시작과 끝을 함께 했던 관원들을 알 수 있는 명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함께 분석한 『송간일기』에서 통례원에 함께 근무한 관원들의 이름과 字號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준 점에서 중요하다.⁵¹⁾

1586년과 1589년 계회도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중복을 제외하면 모두 28명이다. 홍진, 조철권, 권응중, 박적, 윤순 등 5명은 두 계회도에 모두 등장한다. 앞서 <표 1>에서 소개한 『송간일기』에 기록된 자주 만난 ‘同官’은 모두 12명이었는데, 이들은 조철권(77), 고응잠(50), 전삼락(44), 김홍주(42), 권응중(27), 홍진(26), 이원로(23), 설함(22), 윤순(20), 장응명(20), 금할(18), 박적(15)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표 2>의 ‘통례원계회도’에 등장한다. 주목할 점은 1589년에 인의로 승진한 홍진을 제외하면 모두 가인의와 겸인의였다는 점이다. 즉, 통례원 ‘동관’ 가운데에도 이정회는 동일 관직이었던 이들과 유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 계회도에 수록된 다른 이들 역시 『송간일기』에서 만남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같은 겸인의였던 조수익(3), 권전(9), 가인의였던 정복(6), 이응길(7), 조공(1) 등 계회도 좌목에 등장하는 가인의와 겸인의는 모두 최소한 1회 이상은 일기에서도 교류가 확인된다.

반면, 實引儀 이상의 관원은 일기에서 만남을 찾기 어렵다. 1586년 좌목에서는 우통례 이거만이 2회의 만남이 확인되고, 이 외의 인의인 윤경지, 최삼익, 남응선은 단 1회만 기록되어 있다. 예외로 전직이었던 전오륜만 8회의 기록이 확인되며, 방승경은 아예 만남이 확인되지 않는다. 1589년 좌목의 경우에는 좌통례 이정호, 인의 박원개, 송유제, 송안국은 단 1회도 만남이 기록되지 않았고, 양응춘(5)이나 홍진(26) 정도만 기록에 확인된다. 홍진의 경우는 겸인의를 함께 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기록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교류를 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정회가 일기에 그날 만났던 인원을 기록해두는 습관을 보면 이들과의 만남이 빈번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짐작할 수 있다.

이정회는 통례원 내의 ‘동관’에서도 동일 관직이었던 ‘겸인의’나 본인이 거쳐온 ‘가인의’들과 집중적인 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철권과의 교류가 가장 두드러졌다. 조철권과는 해당기간 77회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다. 조철권은 영남 선산이 거주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 서울이나 기호지방에 거주했던 다른 동관들과는 다른, ‘동향’이라는 친연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1589년 가인의에 제수된 전삼락(44)과 금할(18) 역시 영남 예천이 거주지로 ‘동향’ 출신이

51) 『송간일기』에는 대부분 이름보다 字를 써서 해당 인물을 기록했는데, 통례원 겸인의 정도 되는 인물들은 자호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본 계회도의 기록은 중요하다.

었던 점 때문에 특별히 잦은 교류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동관’에서도 ‘동향’의 인연이 있다면 친연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통례원 관원들은 계회도를 제작한 모임 이외에도 잦은 관원 모임을 이어가기도 했다. 1586년 8월 2일, 8월 11일, 8월 23일에 통례원의 모임에 갔던 기록들이 일기에서 확인되는데,⁵²⁾ 결국 그 해 9월 ‘통례원 계회’를 진행하고 좌목을 남기기도 했다.⁵³⁾ 10월 3일 동관들을 만나거나,⁵⁴⁾ 12월 8일 동관들과 숙박한 기록들 역시 눈에 띈다.⁵⁵⁾ 1589년 3월 26일, 4월 20일, 5월 22일, 7월 19일, 11월 19일에도 통례원 모임이 있었다는 일기 기록이 있는데,⁵⁶⁾ 기록이 없던 시기를 빼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통례원에서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 그해 12월 통례원 계회를 한강에서 설행하며 계회도를 남겼다.⁵⁷⁾

이처럼, 통례원 관원들은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를 지속하였고 이러한 모임 이외에도 사적으로도 서로 왕래하며 대화하고 술을 마시고 숙박을 하는 등의 사적 결속 역시 지속하고 있었다. 자연히 이정회와 통례원 관원들의 친연성은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만남은 이정회가 통례원에 재직하는 중에 주로 확인되지만 이정회가 통례원을 떠난 이후에도 이들은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유지해갔다.

이정회가 1590년 4월 13일, 사온서 주부에 제수된 이후에도 옛 동료들과의 만남은 주기적으로 확인된다. 우선 가장 잦은 만남을 가졌던 조철권의 경우는 일기 전체에 걸쳐서 114회의 만남이 확인된다. 특히, 통례원을 떠난 이후에도 18회 가량 만남을 지속했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1591년 5월 1일 횡성현감에 제수되어 지방으로 내려간 이후에도 몇 차례나 더 만남을 지속했고 그 기록은 1593년 5월 5일까지 확인된다. 이때 종일토록 횡성관아에 머무르며 함께 숙박하고 대화하였다.⁵⁸⁾

고응잠의 경우에는 일기에 60회이 만남이 확인된다. 첫 만남은 1585년 4월부터인데 아마 통례원에서 첫 인연이 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고응잠은 충북 음성 사람으로

52) 『송간일기』 권1, 선조 19년(1586) 8월 2일, 8월 11일, 8월 23일.

53) 『통례원계회도』(1586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54) 『송간일기』 권1, 선조 19년(1586) 10월 3일.

55) 『송간일기』 권1, 선조 19년(1586) 12월 8일.

56) 『송간일기』 권2, 선조 22년(1589) 3월 26일, 4월 20일, 5월 22일, 7월 19일, 11월 19일.

57) 『통례원계회도』(1589년), 호림박물관 소장.

58) 『송간일기』 권2, 선조 26년(1593) 5월 5일.

이정희보다 먼저 통례원에 재직한 선임이었다. 고응잠과의 마지막 만남 기록은 1593년 11월 11일인데,⁵⁹⁾ 이후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때 이정희는 횡성현감에서 군자감 판관으로 제수되어 조정에서 사은숙배를 위해 서울에 올라간 때였다.

전삼락의 경우에는 일기에 61차례 확인된다. 첫 인연은 1582년이다. 전삼락이 영남 예천 사람으로 안동과 인근에 거주하던 사람이어서 그 인연이 일찍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역시 1593년 10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만남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때 전삼락과 함께 숙박하며 종일 대화하였다고 한다.⁶⁰⁾

이 외에도 김홍주, 권응중, 홍진, 이원로 등과도 통례원을 떠난 이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들과의 인연은 대부분은 1593년을 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는 이정희가 1594년 1월부터 고향인 안동으로 들어와 생활했던 것과 관련된다. 이후에는 중앙에서 맺었던 인연들을 일기 속에서 찾기 어려워졌는데, 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기간 이정희가 맺었던 ‘동관’들과의 인연은 ‘동향’이나 ‘동학’, ‘친족’ 등 다른 인연들과 마찬가지로 잦은 만남과 교류를 이어갔다. 그 인연이 ‘동향’을 중심으로 한 교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통례원을 떠난 이후에도 그 만남이 지속되어간 것을 통해, 동관 사이의 인연도 현실적인 삶에서 중요한 인연의 하나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소한 이정희에게 통례원 점인으로 근무했던 5년의 기간 맺어진 ‘同官’의 인연은 다른 인연에 비해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IV. ‘사헌부 감찰’ 재직과 동관 결속

1. 감찰 재직기의 전반적인 인적 교류

이정희는 1590년 12월 22일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591년 5월 1일까지 약 6개월을 감찰로 재직하였다. 앞서와 같이 이 기간 동안 만난 전체 사람들의 인적 교류 양상을 우선 살펴보고, 이어 사헌부 동관 교섭의 실재를 살펴보겠다.

59) 『송간일기』 권2, 선조 26년(1593) 11월 11일.

60) 『송간일기』 권2, 선조 26년(1593) 10월 27일.

다. 사헌부 감찰 기간 동안 이정회는 142명과 478회의 만남을 가졌다. 이 가운데 단 1회만 만난 인물은 81명이었다.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인원도 있었는데, 그 수는 59회에 그친다. 분석기간이 통례원 재직기간에 비해 1/5가량으로 줄었기 때문에 만남을 가진 인원과 횟수 역시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 기간 잦은 교섭을 보인 인물은 6개월 동안 최소 3회 이상 만난 사람으로 분석하였다. 모두 347회, 39명의 사람이 포함된다. 이들은 해당기간 이정회와 그래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판단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 기간 인적 교류를 확인하였다. 해당 기간 만난 사람들의 분류는 통례원 분석 방식을 따랐다. 이를 도식화한 것이 아래 <표 3>이다.

<표 3> 사헌부 감찰의 재직시의 인적 교류

분류	인원수	횟수	인명(만난 횟수)
친족+동향+동학	3	94	②김성일(36), ③정사성(32), ④이영도(26)
친족+동향	1	3	정사신(3)
친족+동학	0	-	-
동향+동학	2	16	정탁(9), 류성룡(7)
동향+동관	1	3	신지제(3)
친족	0	-	-
동향	5	40	⑦장세한(11), ⑧권희순(11), 옥선(9), 권채(6), 류복립(3)
동학	0	-	-
동관	4	16	이형(6), 이몽상(4), 남찰(3), 이사육(3)
전동관	7	39	전삼락(9), 정약(8), 조철권(7), 고응잠(7), 장창복(5), 정복(3), 설함(3)
미분류	16	133	①이중휘(37), ⑤김사부(22), ⑥노사엄(17), 김경일(6), 송제현(6), 조건(6), 안경원(6), 진우창(5), 안사확(5), 장개세(4), 권사영(4), 장준민(3), 이이후(3), 신금수(3), 김언룡(3), 김익수(3)
합계	39	344	

출전 : 『송간일기』

이정회가 사헌부감찰로 재직하던 1591년 초반에 잦은 교류를 보였던 인물을 분류하면 위 표와 같은 양상이 보인다. 친족과 동향, 동학을 모두 공유한 이는 김성일,

정사성, 이영도 3명이며, 친족과 동향을 공유한 이는 정사신 1명이고, 동향과 동학을 공유한 이는 정탁과 류성룡이다. 그리고, 이들 잦은 교류를 보였던 인물은 앞서 통례원 재직기간에 만났던 인물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인물은 권우, 이정백, 이봉춘, 이함, 김용, 장룡, 박려, 금난수, 권희, 배삼익, 김택룡, 이덕홍, 정곤수 등으로 이들은 이 기간 사망했거나 당시에는 귀향한 상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 외에 동향으로 분류한 인물은 장세한, 권희순, 옥선, 권채, 류복립 등 5명이다. 권희순과 권채는 앞서 통례원 재직기에도 교류했던 인물로 이미 소개했다. 새롭게 張世翰, 玉璫, 柳復立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이 시기 서울에 올라와 지내던 동향 인사들이다. 장세한은 안동 유향소에서도 함께 지냈던 경험이 있고, 서울에서는 주로 의성 경저에서 만난 인연이 있는 인물로 동향의 인사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다만 그의 행적과 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옥선은 의령옥씨로 1554년생이다. 윤천 김용이 만사를 지어준 인연이 있다. 이로 보아 의성김씨 김성일과의 친연성이 추정되는 인물이다. 류복립의 경우 전주류씨로 1558년생이다. 김성일의 외조카로 임진왜란 당시 김성일 휘하에서 공적을 올린 인물이다.

이 시기 흥미로운 교류는 前 同官들이다. 의서습독관, 통례원, 사옹원을 거치며 맺었던 인연들 가운데 이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가 확인되는 이들이 있다. 예컨대, 張昌福은 의서습독관 시절의 동료였고 전삼락, 조철권, 고응잠, 정복, 설함은 통례원 시절의 동료였으며 鄭若은 사옹원 시절의 동료였다. 이 외에 이 시기 인물 가운데 명확한 출처를 알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앞서 소개한 이중휘, 김사부, 노사엄을 제외하고도 安景源, 宋齊賢, 陳遇昌, 張盖世, 權士榮, 張俊民, 李貽厚, 申今守, 金彦龍, 金益粹 등이 이 기간 이정회와 3회 이상 교류하였음에도 그 내력을 자세히 알 수 없다.

결국, 이 시기에도 통례원 시절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인적 교류를 보였다. 특히 ‘동향’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인맥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여전히 김성일과 이영도, 정사성, 정사신 등 이정회에게 가장 중요한 친족, 동향의 인연을 공유한 이들과 교류하였고 동향의 고관인 정탁과 류성룡은 지속적으로, 이정회의 서울 관직 생활에서 큰 의지가 되어준 인연이었다. 이 외에도, 이 기간 새롭게 확인되는 옥선, 류복립 등은 김성일의 영향 아래에서 이정회와 관계를 보인 사람들로서, 이정회는 이 기간에도 ‘동향’을 중심으로, 퇴계의 문인 가운데 김성일과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시기 이정회의 인적 교류에서 앞선 통례원 재직 시기와 다른 지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직 同官들과 꾸준히 인연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새롭게 ‘동관’이 된 사헌부 감찰 사이의 교류가 소략하다는 점이다. 이정회는 사헌부 재직 동안 사헌부 감찰들과의 교류보다, 이전 관직인 통례원 관원들과 더 잦은 만남을 보일 정도였다. 이러한 지점에 대해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2. 감찰 재직기 동관 교섭의 실제

이정회는 1590년 12월 22일,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면서 사헌부와 인연이 시작되었다. 사헌부 근무 당시 이정회는, 사옹원 주부를 거쳐 사헌부에 제수되기까지 항상 수령에 제수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승륙’되고 첫 관직은 사옹원 주부였는데 이 기간 일기에는 都目政事에 주목하면서, 수령의 망에 오를 때마다 자신의 망단자가 선택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하지만 사옹원에 이어,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면서 이정회는 상당한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한다.⁶¹⁾

사헌부는 ‘兩司’의 하나로서 대간이라 불리는 청요직의 하나로서 사헌부 관리는 고관으로 승진하는 경로에 있는 관직으로 알려져 있다.⁶²⁾ 다만, 사헌부에서 ‘臺官’으로 인정받아 청요직의 루트에 있는 관로는 사헌부의 집의, 장령, 지평 각 1인으로 구성된 참서관이었고 사헌부 감찰은 ‘監官’으로 별칭 되면서 청요직에 포함된 관직은 아니었다. 감찰은 모두 24명인데, 모든 이들이 문과 출신으로 제수되는 ‘대관’과 달리, 감찰은 무과나 문음 출신도 제수될 수 있었기 때문에 출신 성분도 매우 다양하였다.⁶³⁾

감찰의 주요한 업무는 왕에게 직언하고 신료들을 탄핵하는 ‘대관’과 달리 각 관사들을 ‘講臺’하여 회계감사를 하는 역할이 주요한 업무였다. 따라서 업무 강도가 매우 강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 같이 감찰들은 서로 다른 관사에 ‘分臺’라는 이름으로

61) “인제수령의 의망에 올랐으나 낙방했고 사헌부 감찰의 의망에 낙점되었다. 이 또한 운수이니 어찌 한탄할 것이 있겠는가.” (『송간일기』 권2, 1590년 12월 22일).

62) 송웅섭, 「조선전기 청요직의 위상과 인사이동 양상」,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2017.

63) 김재명, 「조선초기의 사헌부 감찰」, 『한국사연구』 65, 한국사연구회, 1989.

파견되어 회계감사를 하였다. 이정희의 일기 속에도 매일 같이 관사의 창고를 살피느라 업무가 매우 고역이었으며 특정 관사의 경우 감찰할 일이 많아서 야근도 수시로 하였다.⁶⁴⁾ 당연히 이 시기는 앞선 시기보다 사람들을 만날 기회나 여유도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료 관원들과 한가하게 사적 모임을 할 겨를도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사헌부 감찰로 재직할 6개월의 기간 동안 두 번의 계획도를 남길 정도로 관원간의 결속이 강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사헌부는 감찰만으로 구성된 ‘驄馬契會圖’를 남기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의 사헌부 계획은 감찰만의 계획였다.⁶⁵⁾ 이에 따라 그간 사헌부 감찰들은 강력한 연대의식이 있는 집단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헌부 감찰의 동관계회도를 분석할 때 그들의 ‘결속’을 당연한 전제로 삼았다.⁶⁶⁾ 특히 계획도에 포함된 시문을 분석하여, 이들간의 연대의식이 강고했음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⁶⁷⁾

그런데 이정희의 사례로 보면 이정희는 ‘免新禮’라는 주어진 상황에서 불가피 계획도를 제작하고 계획에 참여했던 정황을 볼 수 있다. 이정희에게 사헌부 감찰은 전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다.⁶⁸⁾ 사헌부 감찰 24명은 동관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실제 공무 외에는 서로 만날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적인 친목이나 결속이 도모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4>는 이정희가 참여한 총마 계획도의 명단과 이정희의 일기 속에 등장한 만남 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64) 『송간일기』 권2, 선조 24년(1591) 3월 7일.

65) 현존하는 『총마계획도』, 『상대계첩』 등 사헌부를 대상으로 하는 동관계회는 대부분 감찰들의 계획이다.

66) 윤진영, 「송간 이정희(1542~1612) 소유의 동관계회도」, 『미술사학연구』 230, 한국미술사학회, 2001.

67) 최진경, 「조선시대 사헌부 계획의 문학적 재현 양상과 그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75, 민족문화사학회, 2021.

68) 앞서 외관에 나가고 싶어했던 그에게, 자신의 감찰 제수뿐 아니라 동료인 김사부가 감찰에 제수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를 매우 측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송간일기』 권2, 선조 22년(1589) 5월 11일).

〈표 4〉 사헌부계회도의 '좌목'과 동시기 '일기' 등장 횟수

1591년 2월 『충마계회도』, 「좌목」					1591년 윤3월 『충마계회도』, 「좌목」				
이름	한자	자	본관	일기	이름	한자	자	본관	일기
이철견	李鐵堅	子久	전주	-	이철견	李鐵堅	子久	전주	-
이몽상	李夢祥	景休	전주	4	이몽상	李夢祥	景休	전주	4
허광우	許光佑	懋白	김해	-	이사건	李思騫	孝伯	전주	-
이사수	李獅壽	瑞卿	수안	-	권성이	權成己	誠之	안동	-
김자	金磁	南仲	청도	-	김수연	金秀淵	惟精	광주	1
김수연	金秀淵	惟精	광주	1	박잠	朴潛	子昭	고령	-
박잠	朴潛	子昭	고령	-	남찰	南戡	仲秀	의령	3
이정희	李庭檜	경직	진보	본인	이정희	李庭檜	경직	진보	본인
장지현	張智賢	明叔	구례	-	이경록	李慶祿	季應	전의	2
이형남	李亨男	仲達	경주	1	이조	李調	和甫	성주	-
조응록	趙應祿	景綏	풍양	-	이구순	李久洵	而信	전주	-
류석보	柳錫輔	汝翼	진주	-	이형남	李亨男	仲達	경주	1
홍여성	洪汝誠	壬眞	남양	1	홍여성	洪汝誠	壬眞	남양	1
이형	李亨	夏卿	성주	6	이형	李亨	夏卿	성주	6
장형	張迥	近夫	풍덕	-	송제	宋悌		남양	2
이제	李礪	仲質	고성	-	이문전	李文筌	馨夫	신평	1
유탁	俞濯	汝新	창원	-	유탁	俞濯	汝新	창원	-
이갑	李(心+甲)	愼夫	전주	-	이갑	李(心+甲)	愼夫	전주	-
하홍수	河弘秀	叔任	진주	-	하홍수	河弘秀	叔任	진주	-
김의검	金義儉	仲約	배천	-	이수준	李壽俊	台徵	전의	1
이사옥	李士郁	文仲	경주	3	류인길	柳寅吉	敬休	문화	-
류인길	柳寅吉	敬休	문화	-	신지제	申之悌	順甫	아주	3
이문전	李文筌	馨夫	신평	1	허진정	許進廷	敬甫	하양	-
이안겸	李安謙	子益	덕수	-	이안겸	李安謙	子益	덕수	-

위 명단에는 1591년 2월의 계회도에는 이정희를 제외하고 23명 가운데 13명은 다음 계회도인 윤3월의 좌목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며, 10명은 윤3월에는 사헌부를

떠났다. 같은 해 윤3월의 계회도에는 23명 가운데 10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즉, 전체 46명 가운데 중복된 13명을 제외하면 33명이 좌목에 등장한다. 이들 가운데 『송간일기』에 3회 이상 유의미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5명이었고 최소 1회라도 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12명에 불과하다. 위 <표 4>에서도 확인되듯이, 이형이 6회, 이몽상이 4회, 남찰이 3회, 신지제가 3회, 이사육이 3회, 송제가 2회, 이경록이 2회, 김수인, 이형남, 홍여성, 이문전, 이수준이 1회이다. 이 외에 21명의 감찰은 같은 계회도에 이름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이정회의 일기 속에 등장하지 않았다.

더욱이, 殿中 혹은 監察로 지칭되었던 이들은 대부분 공무 관계로만 일기에 등장하고 있었다. 이들이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하거나 일상적 만남을 보인 경우로는 남찰, 신지제, 이형 정도에 불과했다. 그 외에 이몽상이나 송제, 이사육 등은 이름이 자주 거론되었어도 만남 자체가 모두 공무의 연장으로 기록된 것이다. 즉, 동향 출신이자 이미 인연이 있었던 신지제나, 일상적인 만남을 유지했던 남찰과 이형 정도를 제외하고는 감찰 사이의 사적 교류는 매우 소략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감찰에서 그토록 바라던 수령으로 제수되어 축하하러 왔던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도 짐작할 수 있는데, 참여한 감찰이 이몽상, 이형 정도에 불과했다.⁶⁹⁾ 그가 그래도 6개월이나 감찰에 몸을 담고 있었고, 감찰의 정원이 24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별에 직접 온 관원이 2명에 불과했던 것은 사헌부 감찰 사이의 관계가 결속과 친목으로 다져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1590년 12월 22일, 감찰에 제수되고 1591년 1월 19일 허참례가 끝나고 전중 이몽상을 만나기 전까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1591년 2월 작성된 “총마계회도” 모임의 24명 가운데 누구도 이정회를 사전에 찾아온 흔적도 없었다. 더욱이 1591년 5월 1일, 횡성으로 부임한 이후 사헌부 감찰 재직기 만났던 ‘동관’과 단 한 차례도 교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이전에 근무했던 통례원 관원들 사이의 끈끈했던 교류와 분명 다른 모습이다. 오히려 통례원 동관들은 이정회가 사헌부에 근무하는 당시에도 지속되고 있었다.⁷⁰⁾

69) 이는 1591년 5월 1일, 이정회가 횡성현감에 제수된 직후 축하하러 온 인원의 명단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동관인 사헌부 감찰로는 이몽상과 이형만이 당일엔 인사를 왔고, 이후에도 이경응만 확인된다. 반면, 통례원 전직 동료들은 고원용, 조계효, 조건, 이성여, 전경숙 등 다수의 인물들이 당일에 와서 축하해주었다(『송간일기』 권2, 선조 22년(1591) 5월 1일, 4일).

70) “오후에 산대에 올라가서 통례원의 옛 동료들과 마음껏 즐기다가 돌아왔다.”(『송간일기』 권2,

감찰은 『총마계회도』나 『상대계첩』과 같이 동관계회도를 많이 제작했던 관서의 하나이기도 했다. 이러한 관서는 많지 않아서 이러한 잦은 동관계회도의 제작 관습을 통해 이들의 동관인식과 그 결속은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정회의 실제 사례를 보면, 감찰들 사이의 동관인식이 실제로 그렇게 까지 깊은 결속과 친목을 하였는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정회는 처음 감찰에 제수되었을 때 수령에 제수되지 못한 한탄을 내뱉었고 실제로 감찰로서의 재직은 높은 업무 강도로 힘겨워하였다. 매일 같이 청대가 있었고 야근을 하는 날도 많았다. 통례원에서의 관직 생활과 달리 사헌부 감찰은 힘겨운 일의 연속이었다. 그것이 아마 사헌부 관원들과의 모임과 만남을 어렵게 한 요인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유가 어쨌든 간에, 최소한 이정회가 경험했던 사헌부의 감찰은 익히 알고 있던 결속과 친목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는 점이다. 이정회는 사헌부 감찰로서 동관의식을 느끼기보다 조속히 외관으로 떠날 준비만 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동관들과의 결속은 ‘계회도’에 남긴 詩文과 같이 헛된 글귀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⁷¹⁾

V. 맺음말: 동관 결속의 실체와 의미

본 논문은 이정회의 인간관계를 친족, 동향, 동학, 동관으로 분류하고 특히 ‘동관’의 인적 교류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정회는 서울에 올라와 관직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동향’을 인간관계의 구심점으로 삼았고 여기서 연계되어 ‘친족’, ‘동학’의 인맥과 깊은 교분을 맺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주로

선조 22년(1591) 윤3월 10일).

71) 이정회는 1591년 윤3월 계회 당시에 시문을 남겼다. 이를 보면 사헌부 감찰로서의 자부심과 동관들과의 깊은 결속을 다지고 있다(“예로부터 직분을 나열하고 관직을 나누었으니[列職分官自昔時], 엄준한 것이 궁중 의례만한 것이 어디 있으리[峻嚴誰似殿中儀]. 조정의 반열에서 해치관을 쓰고 용맹을 떨치고[鵷班戴豸英威振], 사헌부에서 총마를 타고 풍채를 드날린다[烏府乘驄俊采馳]. 송백처럼 변치 않을 맹세를 함께 맺어 절조를 견고히 하네[共結松盟堅節操]. 난초처럼 향기 나는 교분을 닦아 가슴속 마음을 기대려 하네[擬修蘭契托襟期]. 원하건대 이 난초와 송백의 뜻을 보존하여서[願言保此椒霜意], 조정에서 사대부의 의론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네[莫負朝端士論推].(『송간집』 권1, 詩, ‘신묘년 윤3월 총마계회 당시의 시’).

안동저나 의성저로 지칭되는 영남의 京邸를 중심으로 한 공간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었고 자연히 영남에서 서울로 올라온 인사들을 중심으로 교유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학연으로는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특히 외사촌이었던 학봉 김성일과 교유를 맺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었다. 영남이라는 ‘동향’, 퇴계와 학봉이라는 ‘동학’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던 이정희에게 이를 제외한 인맥은 자연히 ‘동관’을 중심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었다.

이정희는 1569년 醫書習讀官을 시작으로 1578년부터는 통례원에서 가인의와 겸인의를 거치며 관직 생활을 유지했다. 이어 사온서와 사헌부를 거쳐 1591년 횡성 현감으로 외직을 경험했으며, 1593년 군자감을 끝으로 고향인 안동으로 귀향하였다. 이 가운데 통례원 겸인의 시절과 사헌부 감찰 시절에는 계회도를 남겨서 이 두 시기 동관의 인연을 별도로 추적할 수 있다.

우선, 통례원 동관과의 인연을 살펴보자. 이정희는 통례원 겸인의 당시 1586년과 1589년 두 차례 계회도를 남겼다. 여기에 이름을 남긴 이들과 『송간일기』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이정희는 통례원 ‘동관’들과 활발한 사적 모임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희는 통례원 동관들과는 동향 사람들 못지않게 잦은 만남을 보이며 교유 관계를 가졌다. 특히, 조철권이나 고응잠과 같은 이들은 일기 속에서 당대 가장 절친했던 김성일, 권우 등 동향과 친족을 공유한 이들만큼 매우 잦은 만남을 가졌다. 이는 기존 계회도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同官契’가 결속과 친목의 장치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했음을 알려준다.

그간 계회도의 존속 여부는 이들의 긴밀한 결속을 신뢰하고 있었다. 물론, 동관계를 통해 이름을 함께 나열하고 함께 노닐었던 모습을 계회도로 그리고 또 시문을 각자 작성하면서 계회의 기록을 첩이나 축과 같은 형태로 제작하여 나누었던 행위 자체로 그들의 실제 결속이나 친목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관계 혹은 다른 여러 계회 역시도 모임의 성격이나 사람들의 성향, 시대적인 상황, 개인이 처한 위치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그들의 친소나 결속 여부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어서 소개할 ‘사헌부’의 동관 인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희는 1591년 2월과 윤3월 두 차례 사헌부 감찰의 계회도를 남겼다. 앞선 통례원과 마찬가지로, 사헌부에서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동관들의 결속을 전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정희가 이들 4개의 계회에, 4개의 시문을 모두 썼고, 4개의 시문이 유사한 정도로 동관

들 상호간의 ‘결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⁷²⁾ 그런데 실제 『송간일기』를 통해 계획에 참석한 사헌부 감찰들과의 인연 고리를 일일이 찾아보면 기존의 추정과 달리 이들 상호간의 결속을 의심할 여지가 많다. 이정회는 동관인 사헌부 감찰 2명과, 6개월의 기간 동안 사적인 모임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적인 모임은커녕 상호간에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기록조차 거의 없다. 이는 앞선 통례원 관원들의 상호간 교류에서 보인 모습과 판이하게 다른 점이다. 그렇다고 이 시기 일기의 기록이 소홀한 것도 아니다. 이정회는 이 기간 친족, 동향, 동학들을 꾸준히 만났다. 심지어, 이 기간 사헌부 감찰 동관보다 직전 동료인 통례원 관원들을 더 자주 만났다. 이런 점은 사헌부에 존재하는 2점의 계획도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이정회의 사헌부 관원간 결속과 연대는 매우 느슨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하다.

필자가 추정하기에 이러한 차이, 즉 동관의 결속에 대한 두 관서의 차이는 이정회가 통례원과 사헌부에서 근무했던 기간의 차이나 각 관서에서의 역할, 관원들의 구성과 성향 등 상당히 복합적인 면이 작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통례원에서는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사적 친목을 도모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그들과는 실제로 향후에도 수차례 교분을 지닌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반면 사헌부는 근무 기간도 6개월여로 다소 짧았던 탓도 있었지만 성향이 전혀 다른 관원들이 모여서 공적인 업무에 함께 참여할 기회도 많지 않았고 그 탓인지 사적인 교분 역시도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사헌부에서는 관직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만났던 동료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는 점과, 사헌부를 떠나고서는 아무하고도 그 인연을 이후에 지속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통해 사헌부의 동관계회는 매우 형식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동일한 ‘동관계회’라 하더라도 개인의 참여의사나 혹은 관서의 성격에 따라 계획의 결속 정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면, ‘동관계회’와 ‘관련 기록’이 존재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들이 결속했거나 친목을 다졌다고 전제할 수 없다. 이는 추후 동관계의 분석에서 각 개별 계획도와 관원들의 실제 모임을 세밀히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투고일: 2022.03.28

심사일: 2022.05.31

게재확정일: 2022.06.20

72) 이는 『송간집』 권1, 詩文을 참조할 것.

참고문헌

『宣祖實錄』; 『典錄通考』; 『續大典』

이정희, 『松澗集』,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배삼익, 『臨淵齋集』,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통례원계회도』(1586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통례원계회도』(1589년), 호림박물관 소장

김문택, 『조선시대 문중의 형성과 변화』, 민속원, 201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국조인물고』1~3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집부, 1999~2007

이정희, 『松澗日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영인본, 1998

한국국학진흥원, 『退溪學脈圖』, 한국국학진흥원, 2003

김문택, 「16~17세기 안동의 진성이씨 문중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김보미,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16世紀 作品을 中心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3

김재명, 「조선초기의 사헌부 감찰」, 『한국사연구』 65, 한국사연구회, 1989

김정운, 「17세기 예안 사족 김령의 교유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70, 조선시대사학회, 2014

김종석, 「『성재일기』에 나타난 16세기 재지 사족의 교유 양상」, 『국학연구』 41, 한국국학진흥원, 2020

송웅섭, 「조선전기 청요직의 위상과 인사이동 양상」,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2017.

송일기, 「『光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0

송희경, 「朝鮮 後期 雅會圖 研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신영주, 「15, 16세기 관료 문인들의 계회 활동과 계회도축」,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안승준, 「진성이씨가 고문서의 내용과 가치」, 『장서각』 창간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안휘준, 「고려 및 조선왕조의 문인계회와 계회도」, 『고문화』 2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2

윤진영, 「松澗 李庭檜(1542~1612) 所有의 同官契會圖」, 『미술사연구』 230, 미술사연구회, 2001

_____,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4

_____, 「안동 지역 문중소장 계회도의 내용과 성격」, 『국학연구』 4, 한국국학진흥원, 2004

_____, 「조선시대 관료사회의 신참례와 계회도」, 『역사민속학』 18,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_____, 「조선후기 免新禮의 관행과 宣傳官契會圖」, 『서울학연구』 54, 서울학연구소, 2014

이연순, 「惺齋 琴蘭秀의 생애와 교유 양상」, 『국학연구』 41, 한국국학진흥원, 2020

- 전경목,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양반관료의 사회관계망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 최경훈, 「조선후기 同鄉契會帖과 『三清洞道會圖帖』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83, 한국서지학회, 2020
- 최은주, 「『계암일록』을 통해 본 17세기 예안사족 김령의 인맥기반 형성과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5,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4
- _____, 「17~18세기 영남지역 일기를 통해 본 향촌 공론의 변화와 사회관계망의 작용」, 『안동학연구』 15, 한국국학진흥원, 2016
- 최진경, 「조선후기 사헌부 계회의 문학적 재현 양상과 그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75, 민족문화사학회, 2021
- 하영아, 「朝鮮時代의 契會圖 研究-16,17세기 作品을 中心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the personal association of Yeongnam bureaucrats and the reality of the same government office

Na, Young-hun

This paper classified Lee Jeong-hoe(李庭繪)’s human relationship into kindreds(親族), landsman(同鄉), classmate(同學) and colleague(同官), and in particular examined the aspect of human exchange in ‘colleague’. Lee Jeong-hoe had a human relationship centered on the “landsman,” of Yeongnam and the “classmate” of *Toegye*(退溪) and *Hakbong*(鶴峯). Except for this, personal connections were united around ‘the same official’. Lee Jeong-hoe can trace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colleagues during these two periods by leaving a painting of scholar-officials’ gathering(契會圖) during the days of the Tongnyewon(通禮院) and the Saheonbu(司憲府).

It can be seen that Lee Jeong-hoe had an active private meeting with his colleagues at the time of the Tongnyewon(通禮院). This can be the basis for informing that the scholar-officials’ gathering has actually functioned as a device for solidarity and friendship, as pointed out in the study. On the other hand, Lee Jung-hoe rarely held private meetings with his colleagues during his tenure at the Saheonbu(司憲府). There are few records of meeting and talking to each other, let alone private gatherings. This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was seen in the mutual exchange of the officials of the Tongnyewon(通禮院).

Even if it is the same ‘scholar-officials’ gathering’, there is no choice but to show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solidarity between colleagues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intention to participate or the nature of the government office. In other words, it is unreasonable to assume that they have naturally united or strengthened friendship only with the fact that the ‘scholar-officials’ gathering’ existed. In the future, when analyzing the ‘scholar-officials’ gathering’, it is necessary to closely grasp each a painting of scholar-officials’ gathering and the actual meeting of officials before reaching a

conclusion.

Key Words : a painting of scholar-officials' gathering(契會圖), scholar-officials' gathering(同官契), Lee Jeong-hoe(李庭檜), Tongnyewon(通禮院), Saheonbu(司憲府)

